

“지금쯤 즐기는 게 성공이죠”

네이처 신곡 '리카 리카' 발매
1년 6개월 공백기 딛고 컴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컴백이 밀리거나, 결혼할 나이가 됐거나 이런 건 팩트가 맞아요. 하지만 저는 꿈이 먼저기 때문에 아직 결혼하고 싶지는 않네요. 하하.” (소희)

결그룹 네이처가 24일 약 1년 6개월 만에 신곡 '리카 리카' (RICARICA)를 들고 가요계로 돌아왔다.

2018년 맑고 청량한 콘셉트의 '알레그로 칸타빌레' (Allegro Cantabile)로 데뷔한 이들은 신나는 업템포 '내가 좀 예뻐', 성숙한 매력의 '어린애' 등을 발표하며 가요계에 눈도장을 찍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가요계도 불황을 겪으면서 2020년 6월 이후 1년 반이 되도록 팬들에게 새 음반을 내놓지 못했다. 긴 공백기를 거치며 멤버들은 의도치 않게 각자 성장의 시간을 가져야만 했다.

최근 서울 강남구 연습실에서 만난 네이처는 지난 공백기를 두고 “저희 마음가짐이 성장했다”며 “멤버들끼리 '어차피 무대에 올라갈 것이고 무대에서 즐기면 된다'며 독려하면서 마음이 성숙해졌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컴백을 앞두고 음반 제작기를 담은 페이크다큐멘터리도 유튜브에 공개해 화제를 모았다. 그룹명을 딴 3행시로 4부작 다큐멘터리 이름을 지었다는데, 제목이 '네이처 이대로 처 망할 수 없다'다. 성공에 대한 갈망에 투기마저 느껴진다.

멤버 소희는 “공백기가 길어졌다고 해서 기본이 다운되거나 지친 것은 아니었다”며 “안 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연기를 아무



결그룹 네이처

/n.CH 엔터테인먼트 제공

렇지 않게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로하 역시 “페이크 다큐멘터리 제목이 자극적이어서 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제목이 이렇게 세다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난감하긴 했다”며 “그래도 실화가 아니기 때문에 애드리브를 많이 넣는 등 즐거운 마음으로 촬영했다”고 되돌아봤다.

다큐멘터리는 네이처가 이대로 말할 수 없었다며 점쟁이를 찾아가 작곡가를 추천받고, 아프리카 전통춤 '자울링'에서 유래한 독특한 '발재간 안무'를 연습하며 신곡 '리카 리카'를 만드는 과정을 그린다. 다큐멘터리 속 멤버들은 두셋씩 작곡, 의상, 안무를 나눠 음반 제작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루는 “자울링 댄스만 할 땀 넘게 연습했다”며 “처음에는 안무가 어려워서 몸에 잘 안 익어서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지만, 이제는 무대에서 신나게 보여드릴 일만 남은 것 같다”고 말했다.

로하는 “제가 춤 연습을 하다가 발이 부러지는 부상을 입어서 활동을 못 할 뻔했다”며 “스텝이 많다 보니 중심 잡는 것도 어렵고, 안무 자체가 테크닉이 어려워서 노력을 많이 했다”고 부연했다.

2018년 8월 데뷔 이후 어느덧 3년 반 가까운 시간이 지났다. 아이돌 그룹의 계약 기간을 통상 7년이라고 본다면 반환점을 돈 셈이다. 이들이 생각하는 '성공'이란 무엇일까.

“데뷔하기 전에는 데뷔 자체가 하나의 성공이라고 생각했어요. 무대에 서고 대중에게 비친다면 그게 곧 성공이라고 봤죠. 그런데 막상 무대에 서고 나니까 그게 또 다른 시작이더라고요.” (루)

루는 “무대를 서는 과정도 성공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1등을 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멤버들과 함께 하는 지금을 즐기는 게 성공이라고 생각한다”고 어른스럽게 말했다.

이를 들던 로하는 “우리 페이크 다큐멘터리 제목이 자극적인데, '네이처 이제는 처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고 느끼게 하는 게 성공이라고 생각한다”고 재치 있게 받아쳤다.

이번 음반에는 지난 1년 6개월간 기다려 준 팬들을 위한 팬송 '버터묵'도 담겼다.

소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기다려준 팬들의 마음이 너무 감사해서, 우리의 마음을 예뻐 가사로 녹여낸 곡”이라며 “우리는 리프(네이처 팬)에게 대입하지만, 가족이나 연인에게 바치는 노래라고도 할 수 있겠다”라고 소개했다.

“오랜만에 팬들을 만나게 된 만큼 무대에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요. (숨어 듣는 명곡)이라는 말을 듣고 싶어요. '리카 리카'가 운동하면서 듣고, 요리하면서 듣는 노동요가 됐으면 좋겠어요.” (루) /연합뉴스

김래원 SBS '소방서 옆 경찰서' 주연

열혈 형사 '진호개' 역

SBS TV는 배우 김래원, 손호준, 공승연이 새 드라마 '소방서 옆 경찰서' 주연을 맡는다고 24일 밝혔다.

'소방서 옆 경찰서'는 범인 잡는 경찰과 화재 잡는 소방의 공동 대응 현장일지. 타인을 위해 심장이 뛰는 '최초대응자'들의 가장 뜨거운 팀플레이를 그리는 드라마다.

범죄와 재난, 응급과 위급을 오가는 치열한 현장을 경찰서와 소방서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이야기를 국내 최초로 그린다. 점에서 기대가 더해진다.

히트작 '닥터스' 이후 6년 만에 SBS로 돌아온 김래원은 한 번 돌면 반드시 잡는 열혈 형사 '진호개' 역을 맡았다.

거친 눈빛과 독한 말투 탓에 오해도 많이 받지만, 날카로운 현장 파악 능력, 범인의 심리를 읽는 통찰력, 그리고 승부근성까지 모두 갖춘, 말 그대로 '뺨속까지 형사'다.

배우 손호준과 공승연은 소방서 소속이다. 오랜만의 드라마 복귀 소식으로 팬들

을 설레게 한 손호준은 젊은 차기워 보이지만 누구보다 주변 사람과 피해자를 챙기며 거침 없이 화염 속으로 돌진하는 소방대원 '봉도진'을 연기한다.

그간 다양한 장르와 캐릭터에 도전하며 탄탄한 필모그래피를 쌓아온 공승연은 작은 상처도 놓치지 않고 마음까지 어루만지는 구급대원 '송설' 역을 맡았다.

경찰서와 소방서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이야기를 위해 현실적 사건부터 가장 어려운 과학수사로 끙하는 화재조사 디테일까지 리얼하게 담아 재미와 감동을 선사하겠다는 것이 제작진의 각오다.

제작진은 “‘소방서 옆 경찰서’는 범죄와 재난 현장의 숨은 영웅들의 치열한 공동 대응을 그린 작품”이라고 소개하며 “출연을 확정지은 김래원, 손호준, 공승연이 각각의 캐릭터에 최고의 연기와 진심을 더해 완벽한 공조를 선보일 것으로 제작진 역시 기대가 크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달라”고 전했다.

한편 SBS 새 드라마 '소방서 옆 경찰서'는 2022년 상반기 방송 예정이다.

/연합뉴스



SBS TV 새 드라마 '소방서 옆 경찰서'의 (왼쪽부터) 배우 김래원, 손호준, 공승연. /각 소속사 제공

'SM타운 라이브' 29일 리스트리밍

새해 첫날 SM엔터테인먼트가 선보였던 'SM타운 라이브 2022 : SMCU 익스프레스 @광야' 공연이 온라인에서 다시 공개된다.

SM엔터테인먼트는 이달 29일 오후 3시부터 '비온드 라이브' 플랫폼과 LG U+ 아이돌 라이브 웹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공연을 다시 스트리밍한다고 24일 밝혔다.

'SM타운 라이브 2022'는 새해를 맞아 가상의 공간 '광야'를 배경으로 'SMCU (SM Culture Universe) 익스프레스 스테이션'에 소속 가수들이 모두 모인다는 콘셉트로 진행된 공연이다.

강타, 몽방신기, 슈퍼주니어, 샤이니, 엑소, 레드벨벳, NCT, 에스파 등 K팝을 대표하는 SM 소속 선배 가수들이 총출동했으며 레이튼, 임레이, 긴조 등 DJ 아티스트들도 화려한 디제잉을 선보였다. 공연 당시 유튜브 기준으로 전 세계 179개 지역에서 5,100만 건의 스트리밍을 기록한 바 있다.

SM 관계자는 “‘SM타운 라이브 2022’는 SM이 추구하는 공연 콘텐츠를 집대성한 공연”이라며 “이번 리스트리밍은 글로벌 팬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단 한 번 진행되는 특별 이벤트”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KBS '송해 96년 인생사' 31일 방송

대한민국 최고령 MC 송해의 96년 인생사가 뮤지컬로 만들어져 오는 설 연휴인방을 찾는다.

KBS는 설 대기획으로 '여러분 고맙습니다. 송해'를 편성했다고 24일 밝혔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송해'는 송해의 인생을 트로트 뮤지컬로 재구성한 것으로, 송해뿐 아니라 가수 정동원, 이찬원, 영탁, 신유 등이 이날 송해 역을 맡아 무대에 오른다.

국악인 박애리가 송해 어머니 역을 맡는 것을 비롯해 '전국노래자랑'으로 송해와 연을 맺은 송소희, 박서진, 김태연, 홍정연 등도 함께한다.

KBS는 “이번 방송은 장수 프로그램 '전국노래자랑'을 지켜온 국민 MC 송해를 위해 후배 가수들이 꾸미는 한정 공연이자 송해가 시청자에게 선사하는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31일 오후 7시 50분 KBS 2TV에서 120분간 방송. /연합뉴스

조이현 데뷔 4년 만 '학교' 시리즈 주연



배우 조이현 /아티스트 컴퍼니 제공

“학교 2021”을 하면서 더 밝아졌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웃음) KBS 2TV 수목드라마 '학교 2021'에서 목수를 꿈꾸는 열여덟의 고등학생 진지원을 연기한 배우 조이현(23)을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사무실에서 만났다.

“열심히 했기에 후회 없어... 시너지 만든 '99즈' 감사”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는 비 오는 날 일인사위도 서슴지 않는 지원은 당차고 밝은 성격으로 시청자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했다.

조이현은 “열여덟의 나이에 꿈이 확고하고, 부모님 반대에도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지원이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설명했다.

“저는 사실 재미없는 사람이고, 옆에서 웃어주고 반응해주는 성격이라고 고민이 많았는데, 하다 보니깐 '너무 귀여움이 과하다'며 감독님이 말리실 정도가 되더라고요. (웃음) 언젠가 또 이런 작품이 온다면 더 잘 해낼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겨서 만족스럽습니다.”

조이현은 확고한 꿈은 있지만 재능이 부족해 속상해하기도 했던 지원을 보며

자신의 고등학생 시절이 떠오르기도 하고 말했다.

“저도 고등학생 때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어서 관련 학과에 진학했거든요. 그런데 노래를 잘 못해서 도전도 해보지 못하고 그냥 포기했어요. 지원을 연기하면서 그때 생각이 정말 많이 나서 캐릭터를 구상하면서도 저 자신을 많이 대입시켰죠.”

데뷔 4년 만에 KBS의 '학교' 시리즈 주연을 꿰찬 그는 “촬영 전에는 부담감보다는 설렘이 더 컸다”면서 “긴 호흡으로 연기하는 작품이 처음이고 좋은 캐릭터까지 주어줘서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했다”고 말했다.

“첫 촬영부터 마지막 촬영까지 함께한 적도 처음이고, 이렇게 많은 대사를 하

고, 많은 장면을 찍는 게 처음이라서 서툴렀던 점도 많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했고 후회는 없어요.”

1999년생 동갑내기로서 시청자들에게 '99즈'라는 애칭을 얻었던 동료 배우 김요한, 추영우, 황보름별 등에게도 고마움을 표했다.

“친구다 보니까 빨리 말을 놓으면서 촬영장이 편했거든요. 또 저도 그렇고 (연기) 경력이 많이 없다 보니까 장면을 만들어갈 때 의견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은 시너지가 나올 수 있겠다고 생각해요. 정말 큰 인연이라고 생각해서 PD님께 감사드립니다. (웃음)”

오는 28일 공개 예정인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지금 우리 학교는'으로 시청자들과 만날 예정인 조이현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지원이와 같은 열여덟 학생이지만 성격도 상황도 너무 다른 캐릭터예요. 올해도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작년보다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연합뉴스

오늘의 운세 김도완 선생 제공 02-766-1818 www.esazu.com

1월 25일 (음력 12월 23일)

子 48년생 하는 일마다 잘되니 신바람이 난다. 60년생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하다. 72년생 분노를 참고 냉정해져야 한다. 84년생 진정한 행복은 만족 속에 있다.

辰 52년생 모처럼 집안에 경사가 생긴다. 64년생 귀인의 도움으로 위기를 이겨낸다. 76년생 결국에는 내 주장을 관철시킨다. 88년생 행운이 찾아오는 날이다.

申 44년생 지성이면 감천이다. 56년생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68년생 절대 뒷사람과 다투지 마라. 80년생 드디어 때가 왔으니 나아가 성취하라.

丑 49년생 인생 최고의 덕목은 사랑이다. 61년생 신운을 얻고 희망을 키운다. 73년생 어찌된 일인지 되는 일이 없다. 85년생 욕심을 줄이면 인생이 행복하다.

巳 41년생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53년생 몇 개의 중요한 일에 집중하라. 65년생 돈 잃고 사람 잃는 운세이다. 77년생 건강에 신경 쓰고 낙상을 조심하라.

酉 45년생 욕심을 줄이고 마음을 편히 가져라. 57년생 포기하지 말고 끈기 있게 버텨라. 69년생 겸손한 사람에게는 적이 없다. 81년생 원하는 것을 얻는다.

寅 50년생 대화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62년생 숨겨둔 찜지 돈이 다 나간다. 74년생 포부는 크나 현실은 정말 어렵다. 86년생 모처럼 재물 복이 넘치는 날이다.

午 42년생 믿을 것이라곤 가족뿐이다. 54년생 노력으로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66년생 대결은 지양하고 협상을 추진하라. 78년생 이성 문제로 힘든 날이다.

戌 46년생 부질없는 과거지사는 잊어 버려라. 58년생 목표를 위해 참고 버텨라. 70년생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82년생 망신수가 있으니 과음하지 마라.

卯 51년생 고향엔, 동맥경화 등을 조심하라. 63년생 대낮에 눈 뜨고 도둑맞는다. 75년생 말보다 실천이 중요한 법이다. 87년생 주위가 어수선하고 산만하다.

未 43년생 젊은이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다. 55년생 시작이 반이다. 67년생 존경하는 귀인과 유익한 시간을 갖는다. 79년생 수리를 따르면 허물이 없겠다.

亥 47년생 도저히 탈출구를 찾을 수 없다. 59년생 투자하기에 더 없이 좋은 날이다. 71년생 어려운 주변상황이 정리된다. 83년생 힘들수록 원칙을 지켜라.